

후두미세수술시 성대 점막하주입술(submucosal infusion technique)의 유용성

김형태*, 조승호, 김민식, 박영학, 선동일, 유우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양성성대질환에 대한 기저막영역과 성대고유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양성성대질환의 조직병리학적 특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질환발생과 관련된 병인과 병태가 밝혀지고 있다.

목적 : 양성성대질환의 병리학적 특성에 맞게 후두미세수술시 성대 고유층 최상층을 최대한 보호하고 병변부위만을 제거할 수 있는 성대점막하주입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7개월간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성대결절과 성대폴립, 그리고 성대구로 성대점막하주입술을 이용한 후두미세수술을 받고 수술 전후 음성분석과 화상회선경검사가 시행가능하였던 환자 21례(성대결절 8례, 성대구 4례, 성대폴립 9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대점막하주입술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한 20례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결과 : 성대점막하주입술을 통한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더 좋은 음성분석학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화상회선경검사상 수술부위의 점막과동재생이 빠르고 슬후 발성장애의 비율이 적었다.

결론 : 성대점막하주입술은 양성성대질환이나 성대상피의 과도한 절제를 요하는 후두미세수술에 도움이 되며, 수술시 성대고유층에 존재하는 미세혈관의 혈관수축을 유도하여 출혈이 적고, 전체병변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여 정확한 병변의 절제가 가능하고, 수술후 성대 고유층최상층을 최대한 보존하여 최대한의 음성학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